

큰비 온다는데…재해 위험지구 ‘공사 중’

국지성 폭우 ‘물폭탄’ 예보 속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광주 77%·전남 20%에 그쳐
침수 예상지역 대충대충 점검

지독한 불 가뭄을 해소하는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올 여름 광주·전남지역에 국지·돌발성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물 폭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재해·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기본적인 우수(雨水) 맨홀 뚜껑 등에 대한 이물질 제거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기상청 등 따르면 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mm 이상 내릴 전망이다. 6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에 따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수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는 6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올듯 경우 내려진다. 사실상 재난피해가 현실화하는 강수량이다.

특히 시간당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순식간에 지름 5km 이내의 지역에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데, 올 여름 광주·전남지역에도 이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서쪽에 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최근 북구청 공동주택과 직원과 작업자들이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경사면의 토사유출을 막는 비닐포장을 씌우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에도 예년처럼 대기 불안정과 상층부 찬 공기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최근 장마철 잦은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다고 나섰지만,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침수 예상지역 18곳을 대상으로 하수시설물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와 시내 길거리 곳곳에 있는 우수 맨홀·하수구 덮개 등은 시민들에게 관리를 미루는 등 방치한 탓에 담배꽂조 등 각종 이물질로 막히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 잠깐 내리는 소나기성 비에도 일부 도로에 물웅덩이가 형성되면서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만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마가 본격 시작됐지만 호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예산 등을 이유로 완료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율의 경우 광주시는 정비대상 29곳 중 26곳을 완료해 89%를, 전남도는 163곳 가운데 146곳을 완료해 62%를 보였다. 아직도 23곳은 공사 중인 셈이다.

특히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광주시의 경우 전체 131곳 중 붕괴위험이 커 국비지원을 받는 D등급을 기준으로 9곳 중 7곳(77%)만 정비됐으며, 전남은 총 1160곳 중 C·D·E등급을 받은 243곳 중 48곳(19.7%)만 정비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13년 5·18단체·범조계·시민단체·언론계 등 343개 단체로 출범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결의안 채택 등의 역할을 했고 시민원과 일베 등 5·18을 훼손하는 세력을 찾아내 명예훼손 고소 등 사법적으로 대응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5월의 가치가 재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더 역동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역사왜곡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진실규명과 헌법전문 명시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치밀한 전략과 촘촘한 계획 속에서 광주공동체의 힘을 모아가지”고 주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훈련생 이틀 결석 적발 못했다고 위탁인정 취소 지나쳐”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훈련생이 이틀간 결석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탁인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모 간호학원 원장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인정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학원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2015~2016년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8월 이 과정에 참가한 22명의 훈련생 가운데 1명이 이틀간 현장실습에 결석했으나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현장실습 중인 훈련생에 대한 출석 관리는 실습 장소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원고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원고가 출석 확인 통지를 신뢰하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 훈련과정이나 훈련생 숫자 등으로 볼 때 그 위반행위가 미미하고, 원고는 이 처분으로 사실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위법성에 대한 책임보다 과중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출석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 이적단체 ‘소풍’ 활동 전 통진당 9명에 징역형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앙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여·

39)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추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연합뉴스

양영복 전남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양영복(무안 제1선거구) 전남도의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도 모두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행정처분 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임용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일에 지역구 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명칭 변경·역할 강화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진실규명·헌법수호 등 나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대책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대책위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호와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

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위는 우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호, 특별법 개정, 기념곡 지정 등 법률·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국회 헌법 개정 로드맵에 따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5·18 왜곡세력 처벌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 등도 전개기로 했다.

진실규명 부문에서는 진실규명특별법 제정,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국가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 위원들은 자치단체별 5·18기념식 개최, 발표명령자 확인 작업,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 등을 건의했다.

한편,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와 박근혜 정부의 5·18왜곡·편향

가수 길, 갯길에 차 세워놓고 잠자다 음주운전 들통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사진)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2일 서울 남대문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갯길 위에 자신의 BMW 차량의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대리운전을 했다”고 변명을 했



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

○…길씨는 차량운행 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0.109%)을 했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전력이 드러나 망신살.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보전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62-714-2254